

초등학교 음악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 고찰

한 윤 이*

국악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악의 특성과 어법을 고려한 지도 방법을 국악 교수법으로 명명하고 분류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국악의 어법에 맞는 국악 교수법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을 분석하여 국악 교수법의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활동 영역에서 적용한 국악 교수법을 분석한 결과, 노래 부르기 활동에는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상체 활용 교수법, 하체 활용 교수법), 무릎 장단 교수법, 손시김 교수법, 구전심수법, 놀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등이 적용되었고, 악기 연주하기 활동에는 구음 활용 교수법, 율명 활용 교수법, 무릎 장단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총보 활용 교수법, 말장단 교수법 등이 적용되었다. 또한 음악 만들기 활동에서는 손시김 교수법,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구음 활용 교수법 등을 적용하였고 감상하기 활동에서는 한배 감지 교수법, 손시김 교수법, 추임새 활용 교수법, 구음 활용 교수법, 무릎 장단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등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적용한 국악 교수법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노래 부르기와 감상하기에서는 여러 교수법을 고루 활용한 반면 악기 연주하기와 음악 만들기에서는 두세 가지 교수법만 집중적으로 적용하였다.

※ 주제어 : 국악 교육, 국악 교수법, 국악 지도 방법, 음악 교과서, 음악 지도서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활동 영역의 국악 교수법
- IV. 국악 교수법의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 V. 결론 및 제언

* 대전천동초등학교 교사(unianess@hanmail.net)

I. 서론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이에 따라 음악 교과용 도서 즉,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가 개발되어 2011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개정된 음악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투입되었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를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 항목과 교수·학습 방법 항목에 국악 교육의 내용과 지도 방법을 구체화하고 체계화 하였다. 교육과정의 이러한 방향은 교과용 도서에 그대로 적용되어 교육과정의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항목의 내용이 교과서와 지도서에 뚜렷하게 반영되었다.

지금까지 음악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연구는 교과용 도서 중 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도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과용 도서 중 지도서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고 교수 학습 방법이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의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드물다. 이러한 상황은 서양 음악이나 국악이나 비슷한데 국악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악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교수법과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주제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악의 어법에 맞는 교수법을 고찰하고 명확하게 교수법으로 명명하여 분류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양 음악의 교수법인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교수법 등은 보편화되어 있어 그 명칭이 낯설지 않지만 국악 교수법이라고 하면 교수법의 종류와 명칭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가 단순히 국악을 지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국악 교수법을 알기 쉽게 분류하는 것에는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사실 서양 음악 교수법이든 국악 교수법이든 교수법의 바탕을 이루는 철학이나 사상 또는 방법 등에서 공통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 음악과 국악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국악은 국악의 특성을 잘 반영한 교수법을 통해서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악을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국악의 어법에 맞는 국악 교수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악 교수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악 교수법의 유형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명명한 것

은 성기련(2009)에 의해서이다. 많은 교사들은 국악에는 교수법이 없다고 알고 있으며 서양의 교수법을 적용하여 국악을 지도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이 교과용 도서에 어느 정도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일은 현장 교사들에게 국악 교수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악 수업의 질을 높이는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악 교수법과 지금까지 연구된 국악 교수법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을 분석하여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국악 교수법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

현재 각 급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중 국악 교수법과 관련된 내용은 ‘4. 교수·학습 방법’ 항목의 ‘다. 학교급별·내용 영역별 지도 (2) 내용 영역별 지도상의 유의점 중 (가) 활동’에 나타난다. 아래의 내용은 (가) 활동 영역의 내용 중 국악 교수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② 노래 부르기에서는 바른 자세와 발성으로 악곡에 따른 자신의 느낌을 개성 있게 표현하도록 한다. 가사와 가락의 관련을 탐색하면서 그에 따른 느낌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도록 하며, 특히 국악 학습에서는 신체 표현을 중히 여기고 놀이를 통한 학습을 권장하며, 전 영역에서 가·무·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시김새와 창법을 지도할 때에는 손, 가락선 악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③ 악기 연주하기에서는 여러 가지 타악기와 가락 악기를 활용한다. 악기는 장구, 소고, 단소, 소금 등의 국악기와 트라이앵글, 탬버린, 캐스터네츠, 북, 기타, 건반 악기, 리코더 등의 서양 악기 중에서 학생의 흥미, 발달 특성,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지도한다. 국악기(타악기)를 지도할 때에는 구음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며, 춤을 활용하여 장단 감을 체득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국악곡은 되도록 국악기로 반주한다.

⑤ 음악 감상을 통하여 학생들이 음악의 미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한다. 다양한 악곡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이 음악의 중요한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애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국악곡을 감상할 때에는 ‘추임새 넣기’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상하도록 한다.

위의 내용 ②에서는 신체표현을 활용한 학습, 놀이를 활용한 학습, 가·무·악 통합 학습, 그리고 손시김과 가락선 악보를 활용한 학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는 노래 부르기 학습에 대한 설명이므로 위의 학습 방법은 국악 가창 교수법에 해당한다. ③항에서는 악기 연주하기에 활용되는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국악에서는 구음을 활용한 학습과 춤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⑤항에서는 국악 감상 학습을 언급하였으며 국악곡을 감상할 때 추임새를 활용한 감상 학습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연주자와의 적극적인 상호교감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악에서 이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추임새를 선택하여 학습 활동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악 어법에 맞는 국악 교수법으로 ‘신체표현 활용 교수법, 놀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손시김 활용 교수법, 가락선 악보 활용 교수법, 구음 활용 교수법, 춤 활용 교수법, 추임새 활용 교수법’ 등 8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신체표현 활용 교수법과 춤 활용 교수법은 의미가 보다 포괄적인 신체 표현 활용 교수법으로 묶을 수 있으므로 결국 교육과정에서는 7

가지의 국악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이와 같이 국악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국악 수업을 국악답지 않게 가르쳐왔던 큰 오류를 범했던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 이렇게 국악 교수법을 자세하게 명시한 것은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현장 교사들에게 국악 수업의 실질적인 안내와 지침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를 계기로 국악 수업은 국악 어법에 맞게 가르쳐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2. 국악 어법에 맞는 국악 교수법의 유형

국악은 여러 면에서 서양 음악과 다른 음악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수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려면 국악이 지니고 있는 음악 어법을 가르쳐야 하고 국악 어법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 그동안 국악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국악 어법에 맞는 국악 교수법을 종합하여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성기련(2009)에 의해서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악 교수법은 크게 전통적인 기보법을 활용한 교수법과 전통적인 신체표현 활용 교수법으로 나누고, 전통적인 기보법 활용 교수법에는 ‘가락 선보 교수법, 구음 교수법, 총보 활용 교수법’ 등이 있으며, 전통적인 신체표현 활용 교수법에는 ‘발림 교수법, 디딤새 교수법, 손장단(양수지박) 교수법, 손시김 교수법’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 교수법은 다시 변미혜외(2010)에서 명칭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전통적인 신체표현 활용 교수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배 감지 교수법(상체 활용, 하체 활용), 무릎장단 교수법, 손시김 교수법’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적인 신체표현 활용 교수법의 발림 교수법과 디딤새 교수법을 한배 감지 교수법으로 정정하고 손장단 교수법을 무릎장단 교수법으로 변경

1) 발림, 디딤새, 손장단, 손시김, 무릎 장단, 한배 등과 같이 교수법에 사용된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악계에서 쓰이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성기련(2009)이 교수법으로 지칭한 것이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국악 교수법에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악 교수법 중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놀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추임새 활용 교수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교과용 도서의 국악 교수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과 연구를 통해 정리된 국악 교수법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교수법들은 일단 성기련(2009)의 견해와 같이 크게 신체표현 활용 교수법과 기보법 활용 교수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현재 교과서에서 국악 제재곡의 기보는 오선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오선보를 활용한 기보법도 국악 교수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오선보는 서양 음악 기보법을 활용한 것이지 전통적인 국악 기보법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여기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놀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추임새 활용 교수법과 전통적으로 우리 음악을 배우는 방식으로 알려진 구전심수(口傳心授)법, 국악 수업에서 단소나 소금 등의 지도에 활용되는 울명 활용 교수법,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적용된 말장단 활용 교수법²⁾ 등을 포함시키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국악 교수법을 종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악 교수법의 분류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하고자 한다. 예컨대 구음 활용 교수법의 경우 기보법의 개념도 있지만 구음이라는 언어(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어의 개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음의 언어적 특성을 강조하여 말장단, 추임새와 같이 언어를 활용한 교수법에 포함시키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구전심수법의 경우도 음성 언어인 선생님의 말소리를 직접 듣고 따라하는 방법이므로 언어 활용 교수법에 넣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놀이 활용 교수법과 가·무·악 통합 교수법은 놀이나 가·무·악이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고 통합 교수법으로 분류해 보았다.

2) 말장단이란 우덕상(1996)에 의해 사용된 용어로써 특정 장단꼴에 말이 지니고 있는 어감을 활용하여 장단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장단 지도 방법이다.

<표 1> 국악 교수법의 유형

내용 분류	유형	구체적인 설명
기보법 활용 교수법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	곡선적인 가락의 흐름을 선으로 나타낸 가 락선보를 활용하는 방법
	울명 활용 교수법	국악에서 사용하는 음이름인 울명으로 가락 을 나타낸 기보법을 활용하는 방법
	총보 활용 교수법	선율(노래, 악기), 노랫말, 장단, 춤 동작까지 총체적으로 제시한 총보를 활용하여 지도하 는 방법
신체표현 활용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상체 활용 장단의 흐름에 맞추어 상체를 움직이는 동 작을 활용하여 한배를 느끼도록 지도하는 방법. 예로써 팔을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움 직이는 동작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하체 활용 장단의 흐름에 맞추어 하체를 움직이는 동 작을 활용하여 한배를 느끼도록 지도하는 방법. 예로써 오금을 굽혀 굴신하며 발을 내 딛는 동작을 활용하여 한배를 느끼도록 지 도하는 방법이 있음
	무릎장단 교수법	양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박이나 장단을 맞 추는 방법
	손시김 교수법	손으로 시김새를 표현하면서 시김새와 선율 을 익히도록 하는 지도 방법
언어 활용 교수법	구전심수법 (口傳心授法)	소리를 직접 입으로 전해 듣고 마음으로 받 아들이는 방법으로 듣고 따라 부르는 방법
	구음 활용 교수법	악기의 소리를 흉내 낸 말(口音)을 이용하여 악기 주법을 지도하는 방법
	말장단 활용 교수법	장단의 형태나 구조에 알맞은 말을 사용하 여 장단을 지도하는 방법
	추임새 활용 교수법	판소리의 추임새를 활용하여 추임새의 쓰임 새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는 방법
통합 교수법	놀이 활용 교수법	전승된 전래 놀이를 활용하거나 창작한 놀 이를 활용하여 노래와 함께 지도하는 방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노래(歌), 춤(舞), 악기 연주(樂)의 활동을 통 합하여 지도하는 방법

Ⅲ. 활동 영역의 국악 교수법

음악 교과는 크게 활동, 이해, 생활화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이 활동 영역을 다시 세분하여 표현하기(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활동 영역을 세분화하여 국악 교수법의 적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1. 노래 부르기의 국악 교수법

노래 부르는 노래 익히기나 노래 부르기와 같은 활동이 주를 이루지만 다른 활동이 첨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신체 표현하며 노래를 부른다거나 놀이를 하며 노래 부르기 등과 같은 활동이 통합된다. 이 활동은 노래 부르기가 중심이므로 주 활동인 노래 부르기에 넣어 분석해 보았다.

<표 2> 초등학교 3~4학년 노래 부르기의 국악 교수법

학년	교수법 유형	활동 내용	
3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어깨동무, 두꺼비집이 여물까, 덕석물자, 훨훨이, 아리랑
	놀이 활용	· 놀이하며 부르기	어깨동무, 두꺼비 집이 여물까, 덕석물자, 남생아 놀아라
	한배 감지	· 신체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훨훨이, 아리랑
4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나물노래, 도라지타령, 개골리개골청, 잠자리 따라서, 산도개비, 호랑장군, 천안삼거리,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새노래, 군밤타령
	가무악 통합	·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춤추기	도라지타령, 천안삼거리, 강강술래, 자진 강강술래, 군밤타령
	놀이 활용	·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	개고리개골청,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가락선보 활용	· 가락을 손으로 나타내며 부르기	천안삼거리
	한배 감지	· 노래에 맞추어 걷기	천안삼거리
	손시김	· 손으로 시김새를 흉내 내며 노래 부르기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위의 표를 살펴보면 3~4학년의 노래 부르기의 국악 교수법은 구전심수법, 놀이 활용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손시김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 등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노래 부르기의 국악 교수법 중 구전심수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놀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순으로 활용도가 높다.

위 분석에 따르면 모든 가창 제재곡에서 듣고 따라 부르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듣고 따라 부르기에 해당하는 구전심수법은 모든 가창 제재곡에 활용되는 기본적인 국악 교수법이라 말할 수 있다. 구전심수는 원래 악보 없이 교사의 범창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주로 음향자료의 시범창을 듣고 교과서의 악보를 보면서 따라 부르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구전심수법을 활용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진정한 구전심수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듣고 따라 부르기 즉 구전심수법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시범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는 시범창을 할 수 있는 실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검정교과서인 5~6학년의 노래 부르기에서의 국악 교수법은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분석한 내용이 많아 5학년과 6학년으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표 3> 초등학교 5학년 노래 부르기의 국악 교수법

출판사	교수법 유형	활동 내용	제재곡
금성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아침해, 떡노래, 깍두기 노래, 옛장수 타령, 널리리야, 창부타령, 도움소, 거문도 뱃노래, 서우젓 소리
	손시김	· 손으로 가락선을 그리며 노래 부르기	떡노래, 널리리야, 거문도 뱃노래
	한배 감지	· 신체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도움소, 거문도 뱃노래, 서우젓소리
	놀이 활용	·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	고사리 꺾기
천재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가래질 소리, 돈돌라리, 메밀노래, 꽤 지나칭칭나네
	손시김	· 손으로 시김새나 가락선을 그리며 노래 부르기	가래질 소리, 태평가
	한배 감지	· 신체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가래질 소리, 널리리야
	가무악 통합	· 춤을 추며 노래 부르기	돈돌라리

태성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떡노래, 거문도뱃노래, 꿩지나칭칭나네, 풍년가
	손시김	· 손으로 시김새나 가락선을 그리며 노래 부르기	풍년가
	한배 감지	· 신체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거문도 뱃노래, 소금장수
	가무악 통합	· 소고 치며 노래 부르기	소금장수

5학년 노래 부르기의 국악 교수법은 구전심수법, 손시김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놀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 5학년에서도 구전심수법을 거의 모든 제재곡에 활용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손시김 교수법과 신체 표현을 통한 한배 감지 교수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초등학교 6학년 노래 부르기의 국악 교수법

출판사	교수법 유형	활동 내용	제재곡
금성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등당기타령, 예농데농, 질꼬내기, 고흥풍장소리, 장장짚세기, 동창이, 풍년가, 꿩지나칭칭나네
	손시김	· 손으로 가락선이나 시김새를 그리면서 노래 부르기	동창이, 금다래꿩
	가락선보 활용	· 가락선보 보며 노래 부르기	동창이, 금다래꿩
	한배 감지	· 신체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질꼬내기, 고흥 풍장소리
미래엔 컬처 그룹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진도아리랑, 등당기타령, 금다래꿩, 너영나영
	손시김	· 손으로 가락선이나 시김새를 그리면서 노래 부르기	등당기타령, 금다래꿩
	가락선보 활용	· 가락선보 보며 노래 부르기	금다래꿩, 동창이 밝았느냐
	무릎 장단	· 무릎장단 치며 노래 부르기	진도아리랑, 등당기타령
	놀이 활용	· 놀이하듯 노래 부르기	꼬리따기, 강강술래
	한배 감지	· 노래 맞추어 몸동작하기	너영나영

천재	한배 감지	· 몸짓장단을 하며 노래 부르기 · 신체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산아지타령, 고사리꺾자, 풍구타령, 봉죽타령, 해남평타령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고사리꺾자, 풍구타령, 봉죽타령,
	손시김	· 손으로 가락선이나 시김새를 그리면서 노래 부르기	산아지타령, 진도아리랑, 해남평타령
	가락선보 활용	· 가락선보 보며 노래 부르기	동창이 밝았느냐
	놀이 활용	·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	고사리꺾자
	가무악 통합	· 노래에 알맞은 몸짓을 하며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해남평타령
태림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등당기타령, 싸름, 청어엮자, 팽이치기
	손시김	· 손으로 가락선이나 시김새를 그리면서 노래 부르기	등당기타령, 태산이 높다하되, 싸름, 금다래꿩
	가락선보 활용	· 가락선보 보며 노래 부르기	등당기타령, 태산이 높다하되, 싸름
	한배 감지	· 신체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싸름, 금도끼 은도끼
	놀이 활용	·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	청어엮자
태성	구전심수	· 듣고 따라 부르기	등당기타령, 금다래꿩, 너영나영, 사물악기가 된 도깨비
	손시김	· 손으로 시김새를 그리면서 노래 부르기	강강술래 놀이요, 등당기타령, 태산이
	가락선보 활용	· 가락선보 보며 노래 부르기	태산이
	가무악 통합	· 장단에 맞추어 몸 움직임을 하며 노래 부르기	금다래꿩, 등당기타령
	추임새 활용	· 추임새 넣어 불러 보기	등당기타령
	한배 감지	· 노래에 어울리는 몸 움직임을 하기	강강술래 놀이요
	놀이 활용	·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	강강술래 놀이요

6학년 노래 부르기에서의 국악 교수법도 5학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구전심수법, 손시김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이외에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6학년 교과용 도서에서 ‘평시조 초장 듣고 따라 부르기’ 활동을 위한 가장 적절한 지도 방법으로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6학년은 이전 학년보다 제재곡의 특성을 잘

반영한 교수법을 모색하여 보다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상과 같이 노래 부르기의 국악 교수법 즉, 국악 가창 교수법은 앞서 분류한 국악 교수법 중 총보 활용 교수법과 구음 활용 교수법, 말장단 활용 교수법을 제외한 구전심수법,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무릎 장단 교수법, 손시김 교수법, 추임새 활용 교수법, 놀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등 국악 교수법의 거의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중에서 구전심수법은 가창 활동 초기에 이루어지는 일반화된 교수법이며 본격적인 가창 활동에서는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과 손시김 교수법 그리고 신체 표현을 활용한 한배 감지 교수법 등이 주로 쓰이고 있다.

2. 악기 연주하기의 국악 교수법

악기 연주하기의 국악 교수법은 악기의 특성을 반영한 극히 일부 교수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3~4학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초등학교 3~4학년 악기 연주하기의 국악 교수법

학년	교수법 유형	활동 내용	제재곡
3	구음 활용	· 장단의 구음을 읽으며 연주하기	두꺼비집이 여물까, 덕석물자, 덩더꿍 우리 가락, 훨훨이, 자장가, 아리랑
	무릎 장단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두꺼비집이 여물까 훨훨이, 아리랑
	한배 감지	· 장단에 맞추어 걸어보기	덩더꿍 우리 가락
	구음, 총보 활용	· 삼채 장단 연주하기	덩더꿍 우리 가락
4	구음 활용	· 구음으로 장단 익히기	나물노래, 도라지타령, 개고리 개골청, 잠자리 따라서, 천안삼거리, 강강술래, 새노래, 대취타
	무릎 장단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개골리 개골청, 잠자리 따라서, 새노래
	말장단 활용	· 말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도라지타령

위의 표를 보면 모든 제재곡에서 장구 연주를 위해 구음 활용 교수법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국악 기악 수업의 내용이 장구와 소고와 같은 장

단 악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장구의 구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고 일반화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음 활용 교수법 다음으로는 무릎장단 교수법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매우 드물게 하체를 활용한 한배 감지 교수법과 총보 활용 교수법 그리고 말장단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앞서 노래 부르기에 포함시켰던 소고춤 추며 노래 부르기,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춤추기 활동은 악기 연주하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악기 연주하기에 넣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가무악 통합 교수법도 악기 연주하기의 교수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 초등학교 5학년 악기 연주하기의 국악 교수법

출판사	교수법 유형	활동 내용	제재곡
금성	구음 활용	· 구음으로 장단 익히기	고사리꺾자, 아침해, 떡노래, 날리리야, 장구와 장단, 거문도 뱃노래, 서우젓소리
	울명 활용	· 울명으로 단소 연주하기	아침해, 아리랑
	무릎 장단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떡노래, 장구와 장단
	한배 감지	· 장단에 맞추어 걷기	장구와 장단
천재	구음 활용	· 구음으로 장단 익히기	돈돌라리, 반딧불이, 태평가, 메밀노래, 꿩지나칭칭나네,
	울명 활용	· 울명으로 단소 연주하기	반딧불이
	무릎 장단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꿩지나칭칭나네
	한배 감지	· 신체를 이용하여 장단 표현하기	태평가
	총보 활용	· 여러 악기로 장단 합주하기	태평가
태성	구음 활용	· 구음으로 장단 익히기	떡노래, 거문도뱃노래, 꿩지나칭칭나네, 풍년가, 산도깨비, 지신밟기, 흥겨운 우리 가락, 영남 풍물
	울명 활용	· 울명으로 단소 연주하기	참새노래, 단소로 소리 내 보자
	무릎 장단	· 몸 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떡노래, 거문도뱃노래, 흥겨운 우리 가락,
	말장단 활용	· 말장단 만들기	풍년가
	놀이 활용	· 말놀이 하기	떡노래
	총보 활용	· 여러 악기로 장단 합주하기	영남풍물

<표 7> 초등학교 6학년 악기 연주하기의 국악 교수법

출판사	교수법 유형	활동 내용	제재곡
금성	구름 활용	· 구름으로 장단 익히기	등당애타령, 풍년가, 쾌지나칭칭나네
	울명 활용	· 울명으로 단소와 소금 연주하기	쾌지나칭칭나네, 새야새야
	무릎 장단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등당애타령, 동창이
미래엔 컬처 그룹	구름 활용	· 구름으로 장단 익히기	꼬리파리, 진도아리랑, 등당기타령, 쾌지나칭칭나네, 너영나영
	울명 활용	· 울명으로 단소 연주하기	개구리소리, 오나라, 아리랑
	무릎 장단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진도아리랑
	한배 감지	· 장단의 변화에 맞추어 건너뛰기	쾌지나칭칭나네
천재	구름 활용	· 구름으로 장단 익히기	산아지타령, 고사리꺾자, 풍구타령, 봉죽타령, 해남평타령
	울명 활용	· 울명으로 단소와 소금 연주하기	고사리꺾자, 해남평타령
	무릎 장단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동창이 밝았느냐
태림	구름 활용	· 구름으로 장단 익히기	등당기타령, 씨름, 청어엮자, 금다래꿍, 금도끼 은도끼, 팽이치기, 태산이 높다하되
	울명 활용	· 울명으로 단소 연주하기	가을길, 팽이치기
	무릎 장단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등당기타령, 씨름, 청어엮자, 금도끼 은도끼
	한배 감지	· 장단에 맞추어 몸 움직이기	등당기타령, 청어엮자
	말장단 활용	· 말장단 만들어 장단 익히기	등당기타령
태성	구름 활용	· 구름으로 장단 익히기	강강술래 놀이요, 등당기타령, 금다래꿍, 너영나영, 사물놀이가 된 도깨비
	울명 활용	· 울명으로 단소 연주하기	너영나영, 산할아버지, 새야새야, 오나라, 어깨춤
	무릎 장단	· 손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태산이
	한배 감지	· 장단에 맞는 신체 표현하기	등당기타령
	말장단 활용	· 말장단 만들어 장단 익히기	등당기타령

5~6학년도 3~4학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제곡에서 구음 활용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무릎 장단 교수법인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몸장단 또는 손장단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단소나 소금과 같은 관악기도 지도에서는 율명을 활용하여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단소나 소금의 지도는 구음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음 활용 교수법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드물게 한배 감지 교수법과 총보 활용 교수법도 쓰이고 있으며 유일하게 태성 음악 교과서에서 말장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볼 때 국악 기악 교수법은 다채롭지 못하고 매 시간마다 동일한 형태의 수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교수법으로 수업을 한다면 장단 지도 시 매번 같은 방식의 수업으로 인해 학습자들은 국악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악기 연주하기에 있어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악기 연주하기에 사용되고 있는 국악 교수법은 구음 활용 교수법, 무릎 장단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총보 활용 교수법, 말장단 교수법 등이다. 이 중에서 악기 연주하기 초기 활동에 반드시 활용되는 교수법은 구음 활용 교수법이며 이와 함께 무릎 장단 활용 교수법이 병행되고 있다. 악기 연주하기의 교수법은 노래 부르기의 교수법에 비해 두세 가지 교수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음악 만들기의 국악 교수법

음악 만들기의 수업 분량은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기 활동에 비한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음악 만들기의 국악 교수법의 활용 정도도 이에 비례하는데 3~6학년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만들기의 국악 교수법

학년	출판사	교수법 유형	활동 내용	제재곡
4	국정	손시김	· 창작한 가락을 손으로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나물노래, 새노래
		가무악 통합	· 노래에 어울리는 춤동작을 만들어 표현해보기	도라지타령
5	금성	가락선보 활용	· 구성음을 활용하여 가락 짓기	도움소
	천재	한배 감지	· 장단에 어울리는 몸동작을 만들고 노래 부르기	넌리리아
		구음 활용	· 구음으로 장단을 만들기	메밀노래
	태성	가락선보 활용	· 구성음을 이용하여 가락 바꾸기	쾌지나칭칭나네
		한배 감지	· 음악에 맞춰 춤 동작을 만들기	처용무
6	금성	가락선보 활용	· 구성음을 이용하여 가락 짓기	등당애타령
	태성	추임새 활용	· 추임새를 넣어 음악 만들기	과자음악 만들기
		구음 활용	· 구음으로 즉흥연주하기	사물악기가 된 도깨비

초등학교 3학년에서는 음악 만들기의 국악 교수법을 활용한 예를 찾아 볼 수 없었고 4~6학년에서도 드물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음악 만들기에서는 교수법의 유형으로 손시김 교수법과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구음 활용 교수법, 추임새 활용 교수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 표현을 만드는 활동을 넓은 의미로 음악 만들기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노래 부르기에 포함시킨 신체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활동을 음악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보면 음악 만들기에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체를 활용한 한배 감지 교수법이 음악 만들기의 국악 교수법에 해당이 되고 상당히 많은 국악 교수법이 활용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음악 만들기 활동의 분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비해 활용되는 국악 교수법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6학년의 경우 5종 교과서 중 2종에서만 국악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고 그것도 한두 번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수법외에 말장단 활용 교수법, 총보 활용 교수법,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 등도 음악 만들기의 교수법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악기 연주하기의 교수법과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감상하기의 국악 교수법

감상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악 교수법은 제재곡에 따라 다양하게 다양한 교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먼저 3~4학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초등학교 3~4학년 감상하기의 국악 교수법

학년	교수법 유형	활동 내용	제재곡
3	한배 감지	· 음악에 맞추어 학의 모습 흉내 내기	학무
4	손시김	· 가락선으로 표현하며 감상하기	새타령
	추임새 활용	· 추임새를 넣어 감상하기	박타령
	한배 감지	· 행진하는 모습과 용고 치는 모습을 흉내 내며 감상하기	대취타

3~4학년 감상하기의 국악 교수법은 한배 감지 교수법과 손시김 교수법, 추임새 활용 교수법 등이 쓰이고 있다. 한배 감지 교수법은 감상곡과 관련된 신체 표현을 하도록 하는 지도 방법인데 주로 표현 대상이나 악기 연주 모습을 흉내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임새 활용 교수법은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교수법에 적용한 것으로 현재 판소리 감상에만 활용되고 있으나 추임새가 판소리에서만 뿐만 아니라 민속악의 여러 장르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추임새를 활용한 교수법을 다양한 장르에서 폭 넓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0> 초등학교 5~6학년 감상하기의 국악 교수법

학년	출판사	교수법 유형	활동 내용	제재곡
5	금성	한배 감지	· 음악에 맞추어 걸어 보기 · 신체 표현하며 감상하기	양청도드리, 타령
	천재	구름 활용	· 구름으로 장단을 치며 감상하기	봉장취
	태성	가무악 통합	·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거나 가볍게 움직이기	지신 밟기, 타령
		가락선보 활용 총보 활용	· 악보를 보며 감상하기	수제천
		한배 감지	· 음악에 맞추어 신체표현하기	수제천

6	금성	무릎 장단	· 무릎장단을 치며 감상하기	가야금산조
		손시김	· 손으로 시김새를 그리며 감상하기	수심가
	미래엔 컬처 그룹	무릎 장단	· 무릎장단을 치며 감상하기	판소리 '춘향가'
		손시김	· 가락선을 그려보고 시김새를 손으로 표현하며 감상하기	수제천
		한배 감지	·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보기	수제천
	천재	손시김	· 손으로 시김새를 그리며 감상하기	가야금산조
		추임새 활용	· 추임새를 넣으며 감상하기	선소리타령
		구음 활용	· 악기소리를 흉내 내며 감상하기	수제천
	태림	구음 활용	· 구음으로 장단 연주하며 감상하기	세영산
		무릎 장단	· 무릎장단 연주하며 감상하기	세영산
		한배 감지	· 음악을 들으며 몸 움직이기	세영산
		가무악 통합	· 일무를 따라 추며 감상하기	종묘제례악
	태성	한배 감지	· 가볍게 걸으며 감상하기	대취타

5~6학년 감상하기의 국악 교수법은 한배 감지 교수법, 구음 활용 교수법, 손시김 교수법, 무릎 장단 교수법, 추임새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교수법이 적용되고 있다. 5~6학년에는 극음악의 제재곡으로 판소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위 표에서 보면 판소리 감상 학습에서 국악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판소리 감상 수업은 단순히 음악을 듣고 음악적 특징을 비교하는 식의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소리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한 추임새 활용 교수법은 4학년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5~6학년 판소리 감상 활동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반면 선소리 타령에서는 추임새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장르에서 추임새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판소리 감상 활동에 추임새 활용 교수법이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3~6학년 감상하기의 국악 교수법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국악 교수법의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1. 국악 교수법의 활용 현황

앞서 살펴 본 내용과 같이 초등학교 3~6학년 음악 교과서 및 지도서는 교육과정
정이 제시한 국악 교수법과 지금까지 연구된 다양한 유형의 국악 교수법을 활용
하도록 잘 제시하고 있다. 활동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현행 음악과 교
과용 도서의 국악 교수법의 활용 현황 및 실태를 국악 교수법의 활용도와 국악
교수법의 제시 형태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국악 교수법의 활용도

국악 교수법은 유형별로 활용 빈도나 적용되는 제재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교수법은 가장 비중이 높은 활동이나 가장 많이 선정된 제재
곡에 사용된 교수법일 것이다. 초등학교 3~6학년의 교과용 도서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은 제재곡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수법이
적용된 제재곡을 분석하여 교수법에 해당하는 장르나 악곡을 표로 제시해보았다.
고찰하는 과정에서 제재곡 중 장르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장르로 제시하였을 때
범위가 너무 넓어 해당 제재곡의 특성을 나타낼 수 없는 경우에는 악곡명으로 제
시하였다.

<표 11> 국악 교수법 적용 제재곡

유형 분류	교수법 유형	적용 제재곡(장르 및 악곡명)
기보법 활용 교수법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	전래동요, 민요, 시조, 수제천
	울명 활용 교수법	전래동요, 민요, 창작 국악 동요
	총보 활용 교수법	풍물, 수제천

신체표현 활용 교수법	한배 감지 교수법	전래동요, 민요, 창작 국악 동요, 춤곡(학무), 품물, 대취타, 영산회상, 양청도드리, 수제천
	무릎장단 교수법	전래동요, 민요, 창작 국악 동요, 시조, 품물, 가야금 산조, 판소리, 영산회상
	손시김 교수법	전래동요, 민요, 시조, 가야금병창(새타령), 가 야금 산조, 수제천
언어 활용 교수법	구전심수법 (口傳心授法)	전래동요, 민요, 창작 국악 동요, 시조
	구름 활용 교수법	전래동요, 민요, 창작 국악 동요, 시조, 품물, 대취타, 봉장취, 수제천, 영산회상
	말장단 활용 교수법	민요
	추임새 활용 교수법	판소리, 입창(선소리타령), 민요
통합 교수법	놀이 활용 교수법	전래동요, 민요
	가무악 통합 교수법	민요, 품물, 종묘제례악

위의 표를 보면 국악 제재곡으로 가장 많이 선정된 민요가 가장 많은 국악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래동요, 품물, 국악 창작 동요 순으로 활용 빈도가 높고 감상 제재곡으로 제시된 악곡 중에는 수제천이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법 중 한배 감지 교수법과 구름 활용 교수법이 여러 장르의 악곡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다. 구름 활용 교수법, 무릎장단 교수법, 말장단 활용 교수법은 주로 제재곡의 장단을 지도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제재곡의 장단과 관련된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활동 영역의 국악 교수법을 고찰한 내용을 종합하면 초등학교 3~6학년 음악교과서와 지도서는 활동 영역 중 노래 부르기과 악기 연주하기에서 보다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 음악 수업에서 활동 영역 중 가창과 기악 활동이 창작과 감상 활동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학년별로는 3~4학년보다 5~6학년군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5~6학년의 국악 제재곡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4학년은 국정교과서 1종인 반면 5~6학년은 검정교과서로써 여러 종의 교과서가 있다는 점도 원인이 된다. 특이한 점은 하나의 제재곡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의 제재곡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경우는 주로 민요이다. 민요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

등 모든 활동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음악적 특징을 다분히 지니고 있고 수준 별로 적용이 가능한 악곡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재곡에 3가지 이상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이 하나의 제재곡에서 6~7가지의 교수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표 12> 다양한 국악 교수법을 적용한 제재곡

학년 (출판사)	제재곡	활동 내용	교수법 유형
6 (태림)	싸름	· 듣고 따라 부르기	구전심수
		· 손가락으로 시김새 표현하기	손시김 활용
		· 가락선보를 보며 노래 부르기	가락선보 활용
		· 구음으로 장단 익히기	구음 활용
		· 몸 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무릎 장단
		·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신체 표현하기	한배 감지
6 (태성)	등당기 타령	· 듣고 따라 부르기	구전심수
		· 구음으로 장단 익히기	구음 활용
		· 말장단 만들어 장단 익히기	말장단 활용
		· 손으로 시김새를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손시김
		· 장단에 맞추어 신체 표현하기	한배 감지
		· 추임새 넣어 불러 보기	추임새 활용
		· 장단에 맞추어 몸 움직임을 하며 노래 부르기	가무악 통합

음악 교과용 도서 중 교과서에 제시된 교수법은 지도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지도서는 추가해서 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도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도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교과서는 학생들이 학습할 주요 내용만 담고 있고 이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는 교사용 지도서에 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노래 부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악 교수법의 출처를 분석해 보면 구전심수법과 같이 보편화 되었거나 무릎장단 교수법과 같이 본격적인 장구 지도의 교량 역할을 하는 교수법은 대부분 지도서에만 제시되어 있고,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악곡의 특징과 관련된 교수법은 교과서와 지도서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다.

<표 13> 초등학교 3학년 노래 부르기의 국악 교수법³⁾

학년	제재곡	활동 내용	교수법 유형	출처
3	어깨 동무	• 듣고 따라 부르기	구전심수	지
		• 손뼉치기 놀이 하며 부르기	놀이 활용	●
	두꺼비 집이 여물까	• 듣고 따라 부르기	구전심수	●
		• 모래놀이하며 부르기	놀이 활용	●
		• 장단의 기본박을 무릎 장단 치기	무릎 장단	지
		• 장단의 구음을 읽으며 연주하기	구음 활용	●
	덕석물자, 남생아 놀아라	• 듣고 따라 부르기	구전심수	지
		•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	놀이 활용	●
		• 장단의 구음을 읽으며 연주하기	구음 활용	●
	월월이	• 듣고 따라 부르기	구전심수	지
		• 구음으로 기본 박 익히기	구음 활용	지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무릎 장단	지
		• 김매기 흉내 내며 노래 부르기	한배 감지	지
	아리랑	• 듣고 따라 부르기	구전심수	지
		• 구음으로 장단 읽어보기	구음 활용	지
		• 무릎장단으로 장단 익히기	무릎 장단	지
		• 팔동작을 익혀 신체 표현하기	한배 감지(상체)	●

2) 국악 교수법의 제시 형태

현행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는 국악 교수법을 글로만 설명하지 않고 각종 악보, 그림, 사진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글과 함께 제시하여 교사가 교수법을 적용하기 쉽게 기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지도해야하는지 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에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 또는 악보를 덧붙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악 교수법을 제시하는 형태 중 글로 설명하는 형태는 일반적인 것이므로 생략하고 글과 함께 추가되고 있는 사진, 그림, 악보 등의 형태가 제시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3) 출처는 지도서인 경우 '지'로 첫 글자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교과서와 지도서에 모두 나오는 경우는 기호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구전심수법이나 무릎 장단 교수법과 같이 설명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것은 주로 글로 서술하고, 한배 감지 교수법, 놀이 활용 교수법, 손시김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과 같이 신체 동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구음 활용 교수법,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 총보 활용 교수법, 율명 활용 교수법 등 기보법과 관련된 교수법은 악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진이나 그림, 악보 등은 교수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도와준다. 단, 신체 동작의 경우 그림 보다는 사진이 사실적이고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림보다는 사진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2. 국악 교수법의 개선 방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내세웠던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는 국악 교수법의 적용 여부나 활용 정도에 크게 좌우된다. 현행 초등학교 음악 교과용 도서는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국악 어법에 맞는 국악 교수법을 대체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는 양적으로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일부 활동이나 제재에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교수법의 유형에 따라 활용 빈도의 차가 크다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적으로 팽창한 국악 교수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악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법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활용에 있어서도 미흡한 음악 만들기와 감상하기에서 국악의 어법에 맞는 국악 교수법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국악은 음악을 감상하는 청중이 연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연주를 하는 동시에 창작하는 통합적이고 즉흥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국악에서는 연주와 감상 그리고 창작 활동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짐을 당연하게 여기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즉흥성을 대표하는 시나위, 산조, 민요 등과 같은 음악은 즉흥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종묘제례악, 풍물놀이, 판소리, 창극, 민요 등과 같은 음악은 악곡에 담긴 통합적 요소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악의 감상과 음악 만들기는 국악의 즉흥성이나 통합성을 체험하기에는 미

흡하고 지도 방법이 서양 음악 교수법을 적용하는데 머무르고 있으므로 국악의 연행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수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기존의 교수법 중 추임새 활용 교수법은 민속악을 감상할 때 청중과 함께 하는 국악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적합하고, 가무악 통합 교수법은 민속악이나 정악에서 노래와 춤 그리고 악기 연주가 함께 이루어지는 제재를 감상할 때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들 교수법을 더 다양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음악 만들기에서는 노래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기와 분리해서 다룰 것이 아니라 활동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불어 국악의 즉흥적 연주 형태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지도 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악 교수법의 유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놀이와 신체 표현, 그리고 춤의 범위와 구분을 교육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단순한 신체 표현과 놀이도 춤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무악 통합 교수법에 넣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고, 신체 표현을 활용한 교수법 중 제재곡과 관련된 동작이나 대상을 단순히 흉내 내는 활동은 어떤 교수법이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손시김과 손으로 가락선을 그리는 교수법, 그리고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의 명확한 구별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김새를 가락의 일부라는 논리에 따라 가락선을 손으로 그리는 활동을 손시김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손시김이라는 용어가 시김새의 의미를 내세운 것이므로 시김새 표현을 하지 않는 제재곡에서 손으로 가락선을 그리는 활동을 손시김 교수법이라 한다면 교수법의 본 의미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손으로 가락선을 그리는 활동은 가락선을 그리는 활동이므로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은 가락선보라는 기보법에 초점을 두고 가락선보가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이라고 지칭하였기 때문에 가락선을 손으로 그리는 활동은 가락선보 활용 교수법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외에도 국악 교수법 중 유사하거나 애매한 것이 있어 명확한 구분을 위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교과용 도서에 적용된 국악 교수법의 유형은 다양한 편이다. 다만, 특정 활동에 특정 교수법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고 교수법들 간의 통합이 미흡하다. 따라서 세부 활동별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는 방안과 교수법을 통합하는 방안

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악기 연주하기의 국악 교수법은 구음 교수법과 무릎 장단 교수법, 율명 활용 교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한배 감지 교수법과 총보 활용 교수법, 말장단 교수법도 쓰이고 있지만 그 활용 빈도는 매우 빈약하다. 총보 활용 교수법은 합주와 같은 활동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주 활용하기 어렵겠지만 말장단 교수법은 재미있는 말로 수업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장단의 초기 지도에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다. 단소와 소금 지도는 율명을 활용하여 지도하지만 실제 정간보와 율자보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다. 정간보는 율명 이외에 기호나 구음 등을 기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교과용 도서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찰한 교수법으로는 이러한 종합적인 기보 방법을 활용한 교수법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기보법을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며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단소와 소금은 율명 뿐만 아니라 구음을 활용하여 지도할 수도 있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가락을 지도할 때 구음을 활용한다면 소리의 느낌을 정확하게 지각하여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단소나 소금 지도에서 율명과 함께 구음을 통합하여 활용한 교수법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판소리와 같이 구성 요소가 뚜렷한 음악에서는 추임새와 아니리, 발림 등 판소리 구성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을 구안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판소리 관련 활동에서 추임새 활용에만 한정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구성 요소를 활용한 교수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종묘제례악, 문묘제례악, 범패 등과 같이 노래와 춤, 악기 연주 등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는 의식 음악의 경우 그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악곡을 구성하는 가무악의 형태를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용무와 같은 춤곡도 감상할 때에 춤을 추면서 감상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곡에서는 가무악 통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상 교수법이 필요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감상 활동 시 이와 같은 교수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않고 제재곡의 쓰임이나 역할, 음악적인 내용을 이해시키고 단순히 감상하는 식으로 지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악곡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순히 감상하는 지도 방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국악 교육의 정상화 또는 국악 교육의 방향을 논하던 지난 몇 십년간 국악 교육을 위해 다양한 지도 방법이 꾸준히 연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국악 교수법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악 교육의 질적 제고는 국악 교수법의 정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악 교수법이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에 적용되고 이를 통해 국악의 특성을 반영한 국악 교수법이 현장에 적용되고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에 제시된 국악 교수법을 고찰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현행 음악 교과서와 지도서는 다양한 국악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노래 부르기과 감상하기 활동에서 다양한 교수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악기 연주하기 활동에서는 2~3가지 교수법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활용하고 있어 활동별로 균형 있는 교수법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학년별로는 5~6학년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였고 제재곡의 유형에서는 민요, 전래동요, 풍물, 국악 창작 동요 등에서 여러 종류의 교수법을 적용함을 알게 되었다. 교수법을 제시할 때에는 글로 설명하는 것 외에 사진, 그림, 악보 등을 많이 활용하여 교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도 두드러졌다.

이렇듯 다양하게 활용되는 국악 교수법의 교육적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활용 빈도가 낮은 추임새 활용 교수법, 말장단 활용 교수법, 놀이 활용 교수법, 가무악 통합 교수법, 총보 활용 교수법 등을 여러 활동에서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제재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지금까지 명명된 국악 교수법 외에 국악의 음악적 특징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적극 활용한 새로운 국악 교수법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국악 교육을 질적으로 더욱 제고할 것이고 국악 교육의 정상화 및 체계화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음악 3, 4. 서울: 교학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 3, 4. 서울: 교학사.
- 변미혜 외 4명(2010). 전통문화예술교육 교육활동 지침서-국악분야·초등과정 -.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성기련 (2009). 국악 어법에 맞는 국악 교수법 고찰. 국악교육연구, 제3권 제2호, 167~188.
- 신계휴 외 7인(2010). 초등학교 음악 5, 6. 서울: 천재교육.
- 신계휴 외 7인(201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 5, 6. 서울: 천재교육.
- 양종모 외 7인(2010). 초등학교 음악 5, 6. 서울: 금성출판사.
- 양종모 외 7인(201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 5, 6. 서울: 금성출판사.
- 이보형 (2010). 국악교수법의 바람직한 방향. 2010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1~6.
- 장기범 외 4인(2010). 초등학교 음악 6. 서울: 미래엔 컬처그룹.
- 장기범 외 4인(201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 6. 서울: 미래엔 컬처그룹.
- 조효임 외 7인(2010). 초등학교 음악 6. 서울: 태림출판사.
- 조효임 외 7인(201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 6. 서울: 태림출판사.
- 주대창 외 5인(2010). 초등학교 음악 5, 6. 서울: 태성.
- 주대창 외 5인(2010). 초등학교 음악 지도서 5, 6. 서울: 태성.

ABSTRACT

An Analysis of Korean Music Teaching Methods Presented i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and Teacher's Manuals

Han, Yun-yi

Research has been made for long on how to teach Korean music, but only recently the types and contents of Korean music teaching methods have been categorized and named.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new Korean music teaching methods presented in the 2007 Revised Music Curriculum along with the types of Korean music researched so far and suggesting some guidelines on how to use Korean music teaching methods by analyzing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instructions presented in the music textbooks and teacher's manuals of 3 to 6 grade elementary school.

The result of analysing the Korean music teaching methods used in activity areas reveals that the singing part employs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such as *Garaksunbo* use teaching method, *Hanbae Gamji* teaching method (Upper body use teaching method & lower body use teaching method), tapping-lap-to-the-beat teaching method, *Sonsigim* use teaching method, *Gujeonsimsu* teaching method, play teaching method and integrated music and dance teaching method, and that playing music instrument part resorts to oral sound use teaching method, tapping-lap-to-the-beat teaching method, *Yulmyung* use teaching method, *Hanbae Gamji* teaching method, *Chongbo*(a score) use teaching method, and *Jangdan* by hand teaching method, etc.

Making music part uses *Sonsigim* teaching method, *Garaksunbo* use teaching method, integrated music and dance teaching method, *Hanbae Gamji* teaching method, and oral sound use teaching method while appreciation part adopts *Hanbae Gamji* teaching method, *Sonsigim* use teaching method, *Chuimsae* use teaching method, oral sound use teaching method, tapping-lap-to-the-beat teaching method and integrated music and dance teaching method, etc.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Korean music teaching methods presented in the current music textbooks and teacher's manuals reflect the ones presented in the curriculum. However, problems have been determined that grade 5 and 6 textbooks have all different instructions according to the publishers and that singing part and appreciation part employ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while playing musical instrument part and making music part rely on just one or two teaching method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eded to find ways to make use of most of the teaching methods in every part of class and to develop more teaching methods for playing musical instruments and music composition.

key words : Korean music education, Korean music instruction, Korean music teaching methods, music textbooks, music teacher's manual.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 3월 2일(3월19일), 게재 확정일: 4월 4일